

일주문 一柱門

부처님오신날



부처님오신날 개요

부처님오신날은 예로부터 불가의 4대 명절(탄신일, 출가일, 성도일, 열반일) 중 가장 성대한 명절이다. 부처님오신날에는 절에 등을 달아 부처님이 이 땅에 내려온 일대사—大事 인연因緣을 새롭게 밝힌다. 부처님오신날이면 전국의 사찰들과 신도들은 갖가지 행사를 갖는다. 행사는 봉축 법요식을 시작으로 제등행렬,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원법회, 또는 각종 이웃 돕기와 위문행사, 각종 서화전, 음악제, 강연회, 세미나 등이 진행된다. 봉축 법요식은 크게 삼귀의三歸衣와 관불, 헌화, 봉축사, 법어, 권공, 독경, 축원, 헌향, 사홍서원의 식순으로 이루어진다. 이 가운데 가장 중요한 순서는 관불灌佛이다. 관불이란 아기 부처님을 목욕시키는 절차다. 관불은 욕불浴佛이라고도 부른다.

석가모니 부처님 탄생계

경전에 따르면 부처님은 태어나자마자 사방으로 일곱 걸음을 걸어가 오른손은 하늘을, 왼손은 땅을 가리킨 채 “천상천하天上天下 유아독존唯我獨尊 삼계개고三界皆苦 아당안지我當安之.”라고 외쳤다고 한다. ‘하늘 위와 하늘 아래 오직 나 홀로 존귀하다. 온 세상이 모두 고통스러우니 내가 마땅히 이를 평안케 하리라’라는 뜻이다. 천상천하天上天下는 천신들의 세상과 그 아래 세상인 인간의 세상을 가리키며, 생명 있는 존재衆生의 세계 전체를 의미한다. 그 세계 전체에서 부처님이 가장 존귀하다는 의미는 생명 있는 존재 가운데 깨달은 부처님이 가장 존귀한 존재임을 드러내는 것이다. 부처님은 자신의 내적인 문제를 모두 해결하여 완전한 자유[解脫]와 궁극의 행복涅槃을 얻었고, 인간과 천신들에게 가르침을 주어 그들이 자유와 행복을 얻게 한다는 점에서 가장 가치 있는 존재라는 의미이다.

석가탄신일에서 부처님오신날로

올해부터는 1975년부터 불려왔던 석가탄신일이라는 명칭 대신 부처님오신날로 바뀌 부르게 되었다.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이날만큼은 우리 모든 불자들이 그 거룩한 탄생의 깊은 뜻을 다시 가슴 깊이 되새겨 모든 중생들의 행복을 간절히 염원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한다. 龍

모시는 말씀

생명의 물결이 푸르름으로 가득한 계절에 부처님께서 이땅에 오신 기쁜날입니다. 이 뜻깊은 날을 맞아 부처님의 자비가 온누리에 가득하고, 자유와 평화와 행복이 충만하길 기원하며 “비슬산 용연사에서 부처님오신날 봉축행사”를 봉행하오니 꼭 동참하셔서 수승한 인연 속에 강탄하신 부처님 오심을 찬탄하시고, 나아가 모든 인연을 위해 감사의 등, 축복의 등불을 환히 밝혀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부처님오신날 봉축행사

- 일 시 불기2562(2018년) 5월 22일(화) 오전 10시 30분
- 장 소 극락전 앞 마당
- 특별행사 어울림마당 : 13시~15시(경품 다수)
- 저녁예불 : 18시 30분
- 점등 및 사리탑돌이 : 19시(극락전 → 적멸보궁 사리탑 - 극락전)
- 회향 : 20시(극락전 앞마당)

불교이야기

수행과 기도 

우리는 모두 행복하고 자유롭고 싶어한다. 불교의 수행과 기도는 윤회의 사슬을 끊어내어 자유로운 삶을 영위하는데 있다 하겠다. 거칠게 흐르는 노도와 같은 마음을 잘 다스려 걸림이 없는 삶을 가꾸어 가기 위해 요구되는 것이 수행과 기도이다.

수행은 스스로의 힘으로 몸과 마음을 닦아 지혜를 얻어 윤회를 끊고 깨달음에 이르는 것이며, 기도는 부처님의 가피력으로 윤회를 끊어 해탈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불교에서 기도는 무언가가 이루어지기를 절대자에게 바란다는 측면보다는 그 무언가를 이룰 수 있도록 스스로 어떻게 하겠다는 다짐의 의미가 강하다.

나아가 그런 다짐이 부처님의 가피력으로 굳세고 튼튼해져 쉽게 좌절되지 않는 경지에 이르도록 하는데 기도의 진정한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수행과 기도에서 요구되는 것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마음 집중이며, 그런 마음 집중 속에서 깊은 삼매에 들게 된다. 이 삼매의 경지에서 지혜를 얻는 것이 수행이라면 가피력을 얻는 것이 기도이다.

삼매에 들어 지혜를 얻는 방법으로는 간경 · 사경 · 염불

· 진언 · 절 · 참회 · 정근을 통한 수행과 기도 및 수식관 · 부정관 · 자비관 · 간화선 등의 여러 가지 참선법이 있다.

간경看經이나 사경寫經이란 부처님의 가르침을 기록한 경전을 보고 읽고 쓰거나 마음에 새기는 것을 말한다.

염불念佛이란 불보살님의 이름이나 모습, 그 본래의 마음을 관하거나 부르면서 몰입해 들어가는 것이며, 진언이란 부처님의 말씀 중에 참 말씀을 외는 것이다.

부처님을 향하여 일심으로 절하면서 귀의하는 것이 108배, 1080배, 3000배 등의 절이며, 특히 염불할 때 한결같은 마음으로 부지런히 쉬지 않고 수행한다

하여, 이를 정근精勤이라 한다.

기도나 수행에 들어가기에 앞서 또 하나의 중요한 절차가 있는바, 바로 참회懺悔이다. 참회란 온갖 잘못된 편견과 행위, 독선에 가득 찼던 자신을 겸허하게 반성하고 앞으로 이러한 잘못을 다시는 짓지 않겠다는 다짐이다.

참회의 행위 자체만으로도 업장이 소멸된다고 해서 참회를 별도로 떼어내어 기도 내지는 수행의 방법으로 삼고 있기도 하다. 



부처님오신날 연등접수 안내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연등을 밝히는 것은 어두운 세상에서 밝은 세상으로 향하는 지혜를 뜻합니다. 부처님 전에 정성이 담긴 등燈을 밝혀 황액과 우환, 질병에서 벗어나 무병장수를 구하고, 집안의 안녕과 행복을 기원하시어 밝은 지혜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 부처님오신날 봉축행사

● 일 시 불기2562(2018년) 5월 22일(화) 오전 10시 30분

● 장 소 극락전 앞 마당

■ 극락전 (가족연등) : 설판등 - 500,000원 / 가족등 - 100,000원

■ 적멸보궁(가족연등) : 장엄등 - 1,000,000원 / 설판등1 - 500,000원
설판등2 - 300,000원 / 가족등 - 100,000원

■ 명부전 영가등 : 100,000원

■ 마당 연꽃등(가족등) : 50,000원

■ 용두관음등(영산전,삼성각 앞) : 1만원 (1인 1리본)



용연사 바로알기(2)

용연사 龍淵寺 극락전 極樂殿



대구광역시 유형문화재 제41호

목조木造 아미타여래삼존좌상阿彌陀如來三尊坐像(보물 제1813호)을 모시고 있는 극락전은 영산전과 삼성각을 좌우에 거느려 본당으로서의 위상과 기품이 느껴진다.

극락전은 기단을 높게 화강석으로 쌓아올린 석단 위에 정면 3칸, 옆면 3칸 규모로 지붕은 옆면이 사람 인(人)자 모양인 간결한 맞배지

붕이다. 처마를 받치면서 장식을 겸하는 공포는 기둥 위와 기둥 사이에도 배치된 다포양식으로 조선후기 건축양식을 잘 보존하고 있는 건물이다. 통상 극락전은 서방 극락정토에서 계시면서 중생들에게 진리를 가르치는 아미타불을 모시는 법당이다. 그러나 용연사 극락전은 한 가운데에 석가모니불을 본존불로 모시고, 좌우로 문수보살과 보현보살을 협시보살로 모셨다.

극락전의 또 하나의 자랑인 목조아미타여래삼존좌상은 조성발원문을 통해 1655년이라는 조성연대를 알 수 있는 17세기 불상이다. 불상에 보이는 귀염성이 느껴지는 얼굴, 당당하고 장대한 신체 비례, 변화가 거의 없는 강직한 선묘, 무릎 앞에 넓은 주걱모양의 주름을 중심으로 좌우로 밀도 높게 새긴 세밀한 주름 등은 17세기 중엽의 대표적인 조각승인 도우道祐의 작품임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다. 또한 내부 벽화에 그려진 불화나 건물 부재에 그려진 화려한 단청은 매우 고格的 품위를 가진 중요한 불교미술의 진수로 평가할 수 있다. 

2018년도 인등접수 받습니다

- 극락전 관세음보살 인등 : 10만원
- 적멸보궁, 삼성각, 명부전 인등 : 5만원
- 2018년부터는 각 전각에 켜진 인등의 자리와 번호는 바뀌지 않고 항상 고정됩니다. (불을 밝히신 날로부터 1년)

※ 초하루기도와 보름기도를 고정적으로 하실 분 접수받습니다.

용연사 예불 및 기도시간 안내

- 새벽예불 - 극락전 05:00 / 적멸보궁 05:00
- 사시불공 - 극락전 10:30 / 적멸보궁 10:30
- 2시 기도 - 적멸보궁 14:00
- 저녁예불 - 극락전 19:00 / 적멸보궁 19:00

☞ 기도란 : 전생에 지은 죄업의 인연으로 가지가지 어려움이 닥쳤을 때 '불보살님의 가피력'으로 액난을 이겨내고 소원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기도 성취의 비결은 '지극정성 간절히 일념으로' 구하는 데 있습니다. 부처님 진신사리를 모신 천년고찰 용연사 수행기도 도량에서 지극정성 기도를 올리시면, 반드시 소원을 성취하시게 될 것입니다.



용연소식



3월 17일 퇴임하시는 손용선 회장님



3월 17일 신임 김태국 회장님



3월 17일 새로운 신도회 임원님들



3월 17일 2월 초하루 신행 단체별 친선 윷놀이



3월 19일 성문 큰스님 승가대학총장 취임식



3월 24일 불교대학 7기 입학식



3월 24일 불교대학 동문회 사무실에 현판식



3월 24일 불교대학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4월 15일 신도회 사무실 현판식

정기법회 및 기도안내

㉔ 매월 법회안내

- 초하루법회(매월 음력 1일) • 보름포살법회(매월 음력 15일)
- 지장재일법회(매월 음력 18일) • 관음재일법회(매월 음력 24일)
- 영산회법회(매월 음력 10일)

㉔ 연중기도

- 정초산림기도, 입춘 및 삼재소멸기도, 칠석기도, 백중영가천도 49일 기도, 동지기도
- 7일, 21일, 100일, 1년 축원기도 및 그 외 학업성취기도, 생일축원, 영가를 위한 49재, 기제사, 천도재, 설, 추석 명절 합동 차례, 영구위패 봉안해 드립니다.

㉔ 1,000일 기도 안내

부처님 진신사리를 모신 적멸보궁에서 범선 스님의 발원으로 “업장소멸 발원성취”기도를 봉행하고 있습니다. (자비도량참법)

- 기간 : 2017년 11월 22일 ~ 2020년 8월 17일(회향)

● 용연사의 매주 토요일은 불교공부하는 날입니다.

- 10:00 ~ 12:00 - 불교대학강의
- 13:30 ~ 14:20 - 경전강의(주지스님 능엄경 무료강의)
- 14:30 ~ 16:30 - 관세음보살염송법회(무료)

공덕 지으신 분들

■ 2018년 카렌다 도움 주신 분

금혜임, 박봉출, 보명화, 오정각행

■ 용연사 법요집 도움 주신 분

권영도, 금혜임, 김남실, 김명륜, 김성우, 김운하, 김태국, 김현수, 도주희, 백양희, 유우석

■ 학습용 빔프로젝트 도움 주신 분

표미숙, 한경자, 허정림

■ 1,000일 기도(2차)

강상현, 구본우, 권연규, 권영동, 김갑성, 김동주, 김명륜, 김병곤, 김병기, 김병학, 김쌍익, 김연채, 김영곤, 김영자, 김영호, 김종구, 김종덕, 김진길, 김창호, 김현수, 김현진, 남덕우, 노재출, 류규하, 박대근, 박병일, 박봉출, 박유진, 박종창, 박종근, 백대련화, 보명화, 서재평, 서현동, 석호림, 양영진, 오정각행, 윤동철, 윤명용, 이규성, 이병철, 이인구, 이진형, 이창구, 이태균, 장계형, 장승우, 장한봉, 정각행, 정덕기, 조경제, 조용현, 조항래, 주윤식, 지홍구, 차철근, 최서영, 최원석, 최정환, 팽장수, 하중문, 홍진웅

